"영산강 죽산보·승촌보 처리 논의 속도내야"

환경부 해체・상시개방 제시 물관리위 최종결정 세부논의 코로나19로 기약없는 지연 지역환경단체 조속 해체 촉구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영산강 죽산보(洑) 해체 여부가 기 약없이 미뤄지면서 지역민들의 속을 태우 고 있다.

환경단체 안팎에서는 애초 총선 전후로 가닥이 날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코 로나19 여파에 보(洑) 처리 관련 절차, 시 기 등을 논의하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죽산보 와 승촌보의 운명을 결정할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19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해 출범한 뒤 5차례 회의 를 끝으로 세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 리기본법'에 따라 유역 단위 물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내 물 이동 등을 심 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 회'가 제시한 보의 개방·해체 여부에 관한 기초 조사,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죽산 승촌 보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 고있다.

앞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 난해 2월 승촌보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하 는 안을 제시하고, 죽산보의 경우 해체하 는 게 타당할 것이라는 안을 제시했다. 승 촌보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해체의 경제 성이 낮고, 죽산보는 해체 편익이 비용보 다 많다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유역물관리위원회 활동에 대 한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당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 출범 이후 5차례 회의를 거치며 죽산 승촌보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유역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2월 초순 5차 회의를 열고 4대강 조사위원회의 죽산보 해체·승촌보 전면개방 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추가 검토사항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한 차례 더 회의를 계획했다가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연기한 뒤 후속 일정을 잡 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 물관리위원 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서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후속 일정에 대한 관심도 높다. 또 지지부진한 4대강 보 해체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주문을 요 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건강성 회복 과 하천의 종·횡적 연속성 확보 등 자연성 회복에 필요하다며 보 해체를 촉구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영산강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4대 강 사업으로 강이 아닌 호수가 됐다"며 "4대 강 재자연화라 는 국정과제가 제시됐음에도 정작 보 해체 결정은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19' 여파에 죽산보와 승촌보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죽산보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온라인 수업 장애학생 소외 없게…촘촘한 지원대책

광주·전남 교육청 지원단 구성 순회·1대1 맞춤형 교육 지원 점역파일 ·문자 · 수어도 제공

광주·전남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사 상 첫 온라인 개학을 맞게 될 학교현장 에서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학생들의 원 격수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특수교사와 권역별 대표자, IT 전문가 등 40여명으로 특수학급 온라인 학습지 원단을 구성해 학습 콘텐츠 제작과 현장

지원을 돕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각·청각·지체장애 유형 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6일부터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온라인 학 습방'콘텐츠를 연계·제공하도록 하고, 장애로 원격수업 참여가 어렵거나 온라 인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가정의 장애학 생들에게는 교재교구와 스마트기기 등 을 지원한다.

전남교육청도도내초·중·고특수교사 등 33명으로 온라인 학습지원단을 구 성, 학습 콘텐츠 제작과 현장 지원을 하 도록 하고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 지 않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지 원센터의 순회교육은 원격수업과 병행

해 진행하며 언어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1대 1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특히 시·청각·지체장애 유형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점역 파일·문자· 수어 지원을 제공하고,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 도내 3개 거점 특수학교지 원센터(목포, 순천, 나주)를 통해 지원 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가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긍정적 행 동지원 프로그램, 인권침해 또는 가정폭 력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특수학 교나 지원센터에서 상시 지원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공모

광주 북구 선정…국비 지원

광주시 북구가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을 촉진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북구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공모에 선 정돼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을 일생생활 속 문화 예술의 주체자로 참여시켜 생활문화 동호 회 활성화 및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북구문화원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더하기·나누기·누리기·다가치 등 4가지 주제로 생활문화 동호회 발굴, 문 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 재능기 부, 마을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방 /정병호 기자 jusbh@

오늘의 날씨 06:12 16:47 18:58 달짐 05:13 큰 일교차 서울 강릉 \Diamond 내륙 중심으로 아침에 쌀쌀하다 낮부터 풀리겠다. \Diamond 인천 \bigcirc 맑음 2/18 보성 \Diamond 청주 3/19 목포 맑음 2/14 순천 맑음 대전 \Diamond 맑음 5/16 영광 맑음 -1/15 \bigcirc \Diamond 나주 맑음 -2/18 진도 3/14 대구 맑음 4/18 전주 1/17 \Diamond 구례 맑음 -1/20 군산 1/14 \Diamond 부산 강진 1/18 남원 -2/18 \Diamond 0/16 흑산도 5/13 해남 Q -2/17 장성 ◇ 바다 날씨 $\overset{\circ}{\Box}$ 오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 생활지수 북서~북 0.5~1.0 서~북서 0.5 [먼바다(북)] 북서~북 1.0~2.0 서~북서 0.5~1.0 먼바다(남) 북서~북 1.0~2.0 서~북서 0.5~1.0 높음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감기 [먼바다(서)] 북서~북 | 1.5~2.5 | 북서~북 | 1.0~2.0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보통 간조 뇌졸증 05:57 00:24 9 18:32 13:02 보통 01:35 08:02 여수 미세먼지 14:06 20:20 ◇ 주간 날씨 7(화) 9(목) 12(일) 13(월) 8(수) 10(금) 11(토) Q Q 7/18 5/20 6/17 5/18 7/18 7/19

광주·전남교육감 日 독도 역사왜곡 규탄

역사교사 출신인 광주·전남 시·도교육 감이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한 목소리 로 규탄하고 나섰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교과서를 통해 제국주의 침략행위 를 부활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는 세 계 평화에 역행하는 저급한 행위"라며 일 본의 도를 넘는 독도 역사왜곡 교과서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장석웅 교육감은 "독도 교육주간을 설 정해 학생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

장휘국 광주 교육감도 지난달 25일 성 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며, 국제법 적으로도 우리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침탈은 그릇된 역사의식과 영토관이 반 영된 탐욕의 결과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 인 시정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서구, 물품공유센터 양동ㆍ농성동에 추가 조성

매하기 부담스러운 물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물품공유센터를 추가 조성한다

물품공유센터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하기는하나 구입하기엔 부담스러운 혈압•혈당 측정기, 빔프로젝트, 캠핑용 품, 드릴, 사다리 등 1000여개의 물품을 구비, 대여 기간에 따라 물품가격의 1~

광주시 서구는 5일 주민들이 직접 구 3%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구는 현 재 화정2동과 동천동에 물품공유센터를 운영 중이며 양동과 농성동 등 2곳에 물 품공유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서구청 관계자는 "다양한 공유촉진 사 업들을 통해 공유문화가 정착되길 바란 다"며 "앞으로 민간부분의 동참도 적극이 끌어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옅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